

80年代 아시아國家 에너지需給展望

—「에이선·월·스트리트·저널」紙에서—

韓 國

韓國은 비록 얼마전까지는 별 대책 없이 빠른 경제성장에 따라 石油수입량이 계속 늘어왔지만, 현재는 상황이 역전되어 아시아·太平洋지역에서 석유의 존도가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다. 石炭은 비록 매장량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에너지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석탄수입량은 증가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국내에 天然가스자원이 없는 韓國은 비록 분배를 위한 하부구조가 취약하지만 LNG수입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LNG는 오직 소비효율을 위한 것이다. 또 한국은 야심적인 原子力발전계획을 추진해 왔는데 이것은 資本集約의 산업이라는 점에서 제약이 있으나, 기술발달로 이런 불리한 점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韓國은 외국의 석유개발에 보다 직접적인 관여를 시도하고 있지만, 참가 시기가 좋지않고, 아마 결과도 기대에 어긋나게 될 것 같다.

日 本

中興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지역 商業에너지 총수요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은 에너지수요의 거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한다.

에너지면에서 불안한 입장이었던 日本은 73년 석유위기 이전에 이미 에너지源 다양화의 필요성을 예상하여 원

자력발전소 건설을 적극적으로 착수했고, LNG를 수입했다. 그러나 당시 日本의 石油와 에너지수요는 여전히 2배의 비율로 늘고 있었다.

에너지의 75%를 수입석유에 의존했던 日本은 78년에는 71.2%, 현재는 70% 정도로 그 비율을 낮추었으며 대부분의 석유감축부문을 原子力, 天然가스, LNG수입으로 충당했다. 이런 조정은 에너지수요의 급격한 신장화와 석유소비의 실질감소를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석유로부터 다른 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은 매우 어려워서 심지어 日本도 代替계획과, 技術入手, 財政機關이 모두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진전되어 왔다.

지난 80년 12월 日本정부는 90년까지 총에너지수요중 석유의존도를 50%로 낮추기로 결정했으나 지난 2주 동안의 급속한 油價하락에 힘입어 이 목표가 40%로 낮춰질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실질 석유소비(LNG제외)는 少量이긴 하나 착실히 증가하여 하루 75만배럴이 될 것이다.

4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原子力발전소 건설을 현재의 21基에서 55~60基로 약 3배정도 확대할 전망이다. 14基의 새 시설만이 현재 건축중이거나 계획단계를 지났으므로 리이드타임이 길게 걸릴 것이다.

에너지개발계획은 石油가 아닌 石炭을 사용하는 새 발전소시설건설을 비롯, 原子力발전, LNG의 사용확대에 집중될 것이며 에너지의 약 5.5%가

량은 石炭의 液化, 바이오매스, 太陽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되는 석유공급제한의 추진력과 안전압박 없이 이 계획이 달성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台 灣

총에너지의 68.5%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台灣은 原子力발전과 석탄에너지 의존정책 등으로 에너지源의 다양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80년에 시작된 정부의 10개년경제계획에 따르면 에너지수요신장율을 연평균 9.6%로 예상하고 있다. 原子力이용율은 20.8%가 늘어서 총에너지중 비중이 80년의 5.8%에서 90년에는 13.7%로 증가될 것이며, 石炭이용율도 26.2%가 늘어 같은 기간동안 15.6%에서 25.6%로 증가될 것이나 증가된 全供給량은 輸入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신설 발전소의 연료를 油類에서 石炭으로 전환하고 일부 石油를 사용하던 공장도 연료전환을 피하여, 石油의 비율이 68.5%에서 50%이하로 낮아지겠지만 실질 소비는 이 기간동안 연평균 6% 이상 증가할 것이다.

장기적인 에너지源 다양화를 위해 인도네시아로부터 LNG공급이 논의되고 있는데 파이프라인이 시설되어 있으므로 쉽게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石油의존도를 과감하게 줄일 계획이지만, 안전한 供給資源을 찾는 힘들 것이다. *